

# “경기 불황에 내년 살림 막막...희망의 온정을”

다문화 사회를 위한 인종기획

## 근마워요 당신의 땀방울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과 꿈

〈3부〉 한국은 또 하나의 고향

17 재정난 허덕이는 '광주외국인노동자건강센터'



호남지역 최대 외국인 노동자 전문 의료시설인 '광주외국인노동자건강센터'가 날로 늘어가는 의료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재정난을 겪고 있다.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료를 하고 있는 건강센터에는 하루 평균 11개국 노동자 52명이 진료를 받아, 2008년 현재 2천316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치료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살펴왔던 '광주외국인노동자건강센터(소장 이윤빈·이하 외노건강센터)'가 재정난으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호남지역 유일의 외국인 무료 진료소로 지난 2005년 6월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문을 연 외노건강센터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해마다 진료인원이 2~3배 이상 늘어왔다.

특히 방문 환자들이 늘면서 외노건강센터는 진료소 기능을 넘어서 외국인들의 만남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 불황으로 후원의 손길이 점차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가장 큰 후원단체의 지원이 만료돼 내년 살림이 막막한 실정이다.

### 하루 평균 52명 진료...‘만남의 장’ 역할도

3일 외노건강센터에 따르면 올해 745만원을 지원해 전체 후원액수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했던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이 3년째 되는 2008년 만료됨에 따라 대체 후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외노건강센터는 올해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광주시

(600만원), 광산구청(320만원)으로부터 1천665만원을 지원받아 세 기관에 전체 후원액수(2천480만원)의 70%를 의존하고 있지만, 2009년 지원이 확정된 곳은 광주시 한 곳 뿐이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원 대상의 자립을 목표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고, 광산구는 올해 처음으로 지원을 했으나, 내년 예산 심의 전까지는 지원이 불투명한 상태다.

매주 일요일 오후(2~6시) 무료 진료활동을 펼치고 있는 외노건강센터는 일일평균 11개국의 외국인 노동자 52명이 진료를 받아 2008년 현재 2천316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진료소를 찾았다.

지난 2005년 6월 개소해 1년간 872명이 치료를 받았던 것과 비교해보면 3년여 만에 진료인원이 3배 가까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진료인원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후원이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의학·한의학·치과분야에서 의사 50명과 간호사, 학생 등 의료봉사자의 도움으로 인건비가 나가지는 않지만, 올해 약품구입비만 1천100만원이 들어갔고, 건물 임대료 440만원, 공공요금과 사무실유지비 220만원 등을 합치면 살림이 빠듯한 상황이다.

여기에 기관의 지원금은 의료비에만 한정돼 있는 경우가 많아 임

대료 등은 센터 가족들이 십시일반 모아 내고 있다.

장기적으로 외노건강센터의 경영 자립을 위해서는 개인 후원자가 많아야 하지만 올해 개인 및 단체 후원금은 815만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진료소장과 기독병원, 외국인노동자센터, 가정의학과 의사회, 누가회, 건강한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등 센터와 관련된 기관에 집중돼 있다.

### 지원 줄어 운영 어려워...‘인터넷 후원’ 가능

외노건강센터도 재정난 해소를 위해 인터넷 개인 후원자(cafe.daum.net/gjcenter050626)를 모집하는 등 각종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후원의 손길은 더디기만 하다.

이승남 외노건강센터 총무는 “재정난이 심화되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했던 약제를 처방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처럼 외국인 노동자들이 손쉽게 의료 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외노건강센터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진료 및 후원문의 062-954-2292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 식료품 가게 연 이주 여성 베벌리 씨

## “필리핀 고향의 맛 情도 함께 팔아요”



광주의 한 필리핀 이주여성인 최근 고향의 식료품을 파는 구멍가게를 내 눈길을 끌고 있다.

주인공은 필리핀 출신 베벌리 카스트로 (여·38· Beverly Castro·사진)씨. 그는 얼마 전 필리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광주 광산구 월곡동 주택가에 'Pinoy Store'를 열었다.

간판 대신 현관에 'Welcome to Pinoy Store'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는 이곳은 베벌리씨가 필리핀 이주여성 친구와 함께 운영하는 필리핀 식료품 가게다.

10㎡ 남짓한 작은 구멍가게인 이곳에서는 필리핀에서 수입한 과자와 통조림, 토마토 소스 등 식료품을 비롯해 필리핀 산 맥주와 주스 등 음료를 팔고 있다.

베벌리씨는 “임신했을 때 필리핀 음식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필리핀에서 온 이주여성 친구들도 비슷한 경험담을 털어 놓더라”며 제법 능숙한 한국말로 답했다.

광산구의 공단 지역에서 일하는 필리핀 노동자들과 이주 여성들이 고향의 맛을 느끼고 싶을 때 주로 찾는 이곳은 평일에는 손님 10명도 채 안될 때가 많지만 주말이면 20~30명의 필리핀인들이 어김없이 모여든다.

필리핀인들 사이에 입소문을 타고 알려진 이곳은 이제 단순한 식료품점을 넘어 '필리핀 사람'을 뜻하는 'Pinoy'는 가게 이름처럼 필리핀인들이 모여 이국 생활의 외로움을 서로 달래고 고단한 삶의 이야기꽃을 피우는 사랑방이 됐다.

2000년 한국인과 결혼해 광주에 왔지만 2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지금은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 둘을 도맡아 기르고 있는 베벌리씨는 힘든 일상에도 밝은 웃음을 잃지 않는다.

앞으로의 꿈을 묻자 베벌리씨의 대답은 간단했다. “아이들이 한국에서 잘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보양음료 속취해소**  
간(肝)기능보조해트(스트레스)완소

아직도, 힘들게 보약을 물어 드십니까?  
국모보양제는 보양음료 모두의 보양음료입니다.

사·근로자직접모집, 창업시연모집

[국모보양제] 문의: 광주 062-287-7759  
상위: 대구 011-9612-5700

**제 5기 Lab Manager 교육생 및 인턴 모집**

Lab Manager란?

실험실관리: 실험실의 안전, 실험실의 청결, 실험실의 안전, 실험실의 청결, 실험실의 안전, 실험실의 청결

신청방법:

1.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자기소개서,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인턴수용서)

2. 서류심사 (12월 15일)

3. 면접 (12월 22일)

4. 인턴배치 (12월 29일)

5. 인턴수용 (1월 5일)

6. 인턴수료 (1월 12일)

7. 인턴수료식 (1월 19일)

문의: 062-287-7759